

# 교육혁신 지휘 '광주시라이즈위원회' 첫 걸음 내딛는다

공동위원장에 강기정·정성택  
교육·산업계 등 위원 20명 구성  
교육·산업·문화 등 하나로 연계

광주교육 혁신을 총괄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하게 될 '광주시라이즈(RISE)위원회'가 발족했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30 교육도시 대전환을 위한 '광주시라이즈(RISE)위원회'를 발족했다.

라이즈(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하나로, 기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LINC3.0, LiFE, HiVE, 지방대활성화 사업)을 통합하고,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광주라이즈위원회는 발족 후 첫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구성, 라이즈 지원대학 범위, 광주 RISE 5개년(2025~2029) 기본계획(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라이즈체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광주라이즈위원회'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혁신안을 이끌 것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 등이 18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 RISE 위원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기대하고 있다.

광주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RISE)체계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강기정 시장과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학·경제계·산업계·문화계 등 각계각층 대표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광주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사업 예산 배분 및 성과평가, 지역라이즈센터 지정·취소, 라이즈사

업 지원대상 범위 지정, 대학 규제특례 발굴·개선,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등 라이즈체계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평가·사업관리·라이즈 연계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광주라이즈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하거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성과평가전문위원회는 성과관리와 평가를, 사업관리전문위원회는 라이즈사업 예산 배분과 집행을, 라이즈연계전문위원회는 광주시 정책과 사업을 라이즈 단위 과제(16개)에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광주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라이즈 성패는 광주시

뿐만 아니라 대학·자치구·기업·연구기관·관련 단체 등이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다층적인 협업을 통한 다양한 거버넌스, 이를 통한 폭넓은 인재양성으로 교육혁신도시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학과 수평적 라이즈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산·학·연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광주만의 독자적 체계를 구축했다.

또 대학실무협의체, 5개 자치구, 기업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대학과 시민의 의견수렴 및 상담 등을 통해 '광주라이즈(RISE)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광주라이즈기본계획은 '지역-대학 함께 업(UP) 그레이드, 2030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 삼아 교육과 산업, 문화, 복지, 정주를 연계하는 RISE 허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역과 대학 공동체 가치 생성 △지역산업 맞춤형 정주인재 육성 △기업성장 산학연 컨베이어 구축 △알파(A)~오메가(Ω), 직업평생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라이즈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반영해 광주라이즈기본계획(안)을 보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5·18 허위사실 유포' 정성산 이사장 고발

광주시-5·18재단, 법적 대응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8일 1980년 5·18 당시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북한 출신 영화감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에서 5·18은 김일성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군과 남한의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폭동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다.

5·18기념재단이 조사한 결과, '정성산 TV'는 2023년부터 '스카이 데일리' 기사

를 인용한 영상보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 유튜브에서도 유사 영상들이 지속해 올라오고 있다.

고발 대리인인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북한군이 어떻게 당시 보안책임자였던 전두환이나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전남 신안 앞바다와 무등산을 거쳐 광주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었는지, 수백 명의 시신을 어떻게 북으로 데려가 열사릉에 매장할 수 있었는지, 5·18을 북한 특수군이 벌인 교전행위로 주장하는 근거를 설득력 있고 합리적 근거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배 농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27억 지원

재해 미인정된 일소피해 2299곳  
ha당 100만원...내년 1~2월 지급

전남도는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햇볕덥 피해(일소)가 발생했음에도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배 재배농가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 27억원(도 50%·시군 50%)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제로 올해 전남지역 폭염 일수는 평년보다 4배나 많은 33.1일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배 작물에 일소피해가 발생했으나 봉지를 씌우는 배의 특성상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수확 후 저장고에 보관·선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올 폭염으로 햇볕덥(일소) 피해가 발생한 배.

전남도 제공

이에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재해인정, 경영안정지원,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정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시군과 자체적으로 긴급 경영안정 자금 2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

상은 올해 배를 재배한 2299농가, 2710ha로, ha당 100만 원을 내년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배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보험금 약 38억 원을 지급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5년간 이상저온, 태풍 등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일소피해까지 겹쳐 배 농가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번 지원금이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상화·규모화된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산타의 선물 곡성물에서

# 골라 봐요

12월 19일(목) ~ 24일(화) 1인 3매/ 최대5만원

전 상품 30%

곡성의 산타는 곡성물!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든 회원분들께  
통큰 30% 할인 기획전